

〈제 654호〉

-주간- 광주 경영계



광주경영자총협회
GWANGJU ENTERPRISES FEDERATION

광주은행

◆ 지역 여성 청소년 위한 '핑크박스' 전달식 가져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본점에서 송종욱 광주은행장과 김은영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광주 지역본부장, 최선영 광주은행 개나리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 100명에게 총 2천만원 상당의 '핑크박스'를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은 경제적인 이유로 여성위생용품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 청소년들을 지원

하고자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함께 '핑크박스 with 광주은행'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했으며, 광주은행 여직원들의 모임인 '개나리회' 회원들이 주체적으로 나서 여성위생용품, 바디용품, 선크림, 마스크 등 총 12종류의 보건·위생물품으로 구성된 핑크박스를 직접 제작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 침체가 깊어지면서 여성위생용품 구입에 더욱 부담이 가중된 지역 여성 청소년 100명에게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을 통해 전달될 예정이며, 광주은행 개나리회 회원들이 직접 작성한 손편지도 함께 전달해 따뜻한 응원 메시지를 전하기로 했다.

금호타이어

◆ '엑스타 HS52' 디자인과 성능 두 토끼 다 잡아



금호타이어(대표이사 정일택)가 하이테크 기술을 도입하고 단단한 블록 디자인을 트레드 패턴에 활용한 '엑스타 HS52' 제품이 성능에 이어 디자인 부분에서도 제품력을 인정 받았다.

이 제품은 최근 일본 '굿 디자인 어워드(Good Design Award) 2021'에서 본상(Winner)을 수상했다. 굿 디자인 어워드(G-Mark)는 디자인의 가치와

가능성을 널리 알려온 일본 최고 권위의 디자인 공모전이다.

금호타이어는 운전자가 편안함과 스포티한 성능을 동시에 만끽할 수 있도록 '엑스타 HS52'를 설계했으며, 젖은 노면에서 코너링 시 조정 안정성을 확보하고, 마른 노면에서 최상의 퍼포먼스를 구현할 수 있도록 최적의 패턴 방식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오텍캐리어

◆ 프리미엄매장 광주 1호점 오픈 기념행사



오텍캐리어(회장 강성희)는 지난 20일 광주 지역민들에게 브랜드를 직접 경험하고 구매, 고객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프리미엄 매장을 오픈하고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광주경총 김봉길 회장과 오텍캐리어 송용민 대표이사, 광주시 조인철 문화경제부시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매장 오픈 기념을 축하했다.

이번 오픈한 프리미엄매장은 캐리어에어컨과 캐리어냉장 두 브랜드의 고품격 제품을 만나 볼 수 있는 통합 전시 및 판매 매장으로, 콜라보 매장은 크게 하이라이트존, 익스피리언스존, 캐리어에어컨존, 캐리어냉장존, 휴식과 상담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존, 고객상담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프리미엄 내장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할 예정이다.

해양에너지

◆ 전국 최초 가스안전체험시설 개관



해양에너지(사장 김형순)는 지난 19일 가스 사고 없는 안전도시를 선도하기 위해 빚고을 국민안전체험관 2층 생활안전 체험구역에 전국 최초의 가스안전체험시설을 개관했다.

가스안전체험시설은 도시가스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한 ‘가스의 이해’와 사용자 스스로가 가스 안전의 생활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가스안전체험’으로 구축됐다.

해양에너지 김형순 사장은 “가스안전체험시설을 찾은 시민들이 체험을 통해 가스안전 수칙을 잘 숙지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여, 고객 자율안전 선진문화를 선도하는 변화와 혁신의 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알 림 >

본란은 본회 회원사 소식을 게재하고 있사오니 대표 동정, 행사, 제품 소개 등 기타 홍보하실 내용을 보내주시면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 담당 : 최 정 열 총무팀장

○ e-mail : gjef3425@naver.com

II. 광주경충 소식

〈김봉길 회장, 오텍캐리어 프리미엄매장 1호점 오픈 기념행사 축하〉



지난 20일 오텍캐리어의 광주 프리미엄매장 오픈 기념 행사에서 김봉길 회장은 축사를 통해 “오텍이 오텍 캐리어의 전신인 대우캐리어를 인수해 노사관계 등 기업 경영의 많은 우려와 난관을 이겨내고, 에어컨 업계에서 국내는 물론 글로벌 기업으로 자리매김한 광주 대표 지역기업인 오텍캐리어가 매우 자랑스럽다” 며 “최고의 기술력으로 탄생한 오텍캐리어의 고품격 제품을 한 곳에서 체험 및 구매와 상담까지 받아

볼 수 있는 기회인 프리미엄매장이 생겨 기쁘고, 오픈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했다.

〈제3차 인사노무협의회 개최〉



본회는 지난 21일 광주과학기술진흥원에서 지역 내 업종별 회원기업 인사·노무 부서장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도 3차 인사노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3개월 후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법과 관련하여 광주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 관리과장을 초청하여 입법 취지 및 시행령 주요사항 설명과 더불어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후, 지역기업의 산업안전 실태파악 및 대응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협의회에 참석한 기업관계자는“코로나19 및 근로시간 단축, 그리고 임금과 부대비용 상승으로 경영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은 기업을 경영하지 마라는 말로 들린다며, 산업안전 확보를 위한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중소기업이 법령의 성과를 충분히 낼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줘야 한다”며 정부에 중소기업 지원책을 요청했다.

광주경영자총협회 김정훈 본부장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수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법률의 불명확성으로 대기업 또한 의무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역 중소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최소 1년 이상의 유예기간과 더불어 면책규정이 마련될 수 있는 보완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무국 일지(10.18 ~ 10.22)

10.19 (화)	● 광주청년일경험드림 교육 및 홍보 위원 회의	10.21 (목)	● 제3차 인사노무협의회
10.20 (수)	● 오텍캐리어 프리미엄매장 1호점 오픈 기념행사 ●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 직원 근무평가 심사 회의	10.22 (금)	● 제1534회 금요조찬포럼

〈제1534회 금요조찬포럼〉

강사: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주제: 다가오는 미래 시대에 부응하는 기업의 변신

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 김봉길)는 10월22일 광주과학기술진흥원 강연장에서 김진철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을 초청 <다가오는 미래 시대에 부응하는 기업의 변신>이란 주제로 제1534회 금요조찬포럼을 개최했다.

인간 정체성의 본질은 욕구에 따른 행복인데, 행복은 욕구가 만드는 가상적 비전이다. 문명의 발전은 인간의 끝없는 욕구의 결과이다.

그동안의 급격한 산업발전은 사회와 환경을 변화시켰다. 특히 인류가 직면한 최대요인은 기후 변화인데 예상보다 빠르게 진척되고 있어 가뭄, 홍수, 산불, 산사태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그 원인중 하나가 화석연료 사용이다. 그래서 자동차도 내연기관에서 전기자동차의 시대로 가고 있다.

사회 변화는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여러산업군에서 AI활약이 돋보이고 있다. IT, 금융, 공공 의료, 물류 등의 분야는 이미 빅데이터를 사용하여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빅데이터로 인한 지각변동은 시작되었다. 현재의 가치보다는 미래의 가치로 평가받을 수 있는 큰 잠재력과 성장가능성을 갖춘 기술 중심의 회사인 스타트업 회사들도 AI를 기반으로 비용이 급속히 감소되고 있다. 빅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은 미래 경쟁우위를 좌우할 21세기의 원유가 될 것이다.

앞으로 4차 산업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급변하는 공유기술의 접목으로 사업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변화 시장의 니즈를 스타트업으로부터 추적하여, 참신한 아이디어를 민첩성 있게 개발하여 경제성과를 성취해야 한다.

그런면에서 AI 중심도시 광주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AI분야 산업을 선도하도록 협력하고 있으며 AI강국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을 글로벌 신산업 거점으로 육성, AI 융복합을 통한 인공지능 중심 스마트시티 구현과 인공지능 융합 R&D를 추진, 산업역량 강화 및 주력산업을 육성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혼란 속에서도 새로운 시대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사람중심의 좋은 AI기술개발과 도입이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어 가는데 큰 역할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1. 노사 동향

■ 손경식 경총 회장, ILO 사무총장 선거에 출마한 강경화 前 외교부장관 접견(10. 19)

- 손경식 경총 회장은 강경화 前 외교부장관을 UN에서 다년간 근무한 경험을 가진 국제기구 전문가이자, 한국 외교부장관으로 국제사회에서 리더십을 인정받은 책임자라고 언급

※ 차기 ILO 사무총장은 2022. 3 이사회 투표로 결정되며, 임기는 2022. 10. 1부터 시작(5년)

- 손경식 회장은 전 세계 노동시장과 일자리가 코로나19 팬데믹 충격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일의 세계가 유례없는 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ILO의 새로운 역할과 노사정의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
- 또한, ILO가 그동안 국제노동기준 마련과 이행감시에 주력했으나, 규제일변 활동은 변화하는 일자리와 노동시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향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정이 상호발전을 도모하고 미래지향적 발전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 피력

■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실태조사 진행

- 근로면위에서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 시간을 측정하는 설문문항과 관련해 ‘사용자가 유급으로 인정한 시간 외의 실제 활동 시간’ 포함 여부에 대해 이견 존재
- 하지만, 근로시간면제제도 취지가 근무시간 중 이뤄지는 조합활동에 대해 예외적으로 유급을 인정하는 것인 만큼 사용자가 유급으로 인정한 시간에 대해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경영계 입장을 반영

Ⅲ. 노사 및 법제동향

[참고] 근면위 실태조사 설문 작성 관련 주의 사항

- ▲ 금번 실태조사는 산업현장에서 사용자가 유급으로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타임오프가 사용되는 현황(ex> 단체교섭, 노사협의회, 고충처리 등)을 조사하는 것임.
- ▲ 설문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리서치 업체(아이알씨)에 의뢰해 진행되며, 설문대상 업체로 선정된 기업 노사에게 발송될 예정임.
- ▲ 설문지는 해당 기업 노사가 각각 작성해야 하며, 설문과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을시 경총 노사협력팀(02)3270-7417, 김수성 선임위원)에게 문의주시기 바람.

■ 민주노총, 10. 20 전국 14개 지역에서 총파업 강행

- 김부겸 국무총리가 10. 19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대해 ‘공동체의 안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총파업 철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은 10. 20 총파업 진행
- 경찰은 감염병 확산 등을 우려해 서울시청, 광화문광장 등을 중심으로 차벽을 설치했으나, 민주노총은 서대문역 인근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도로 점거
-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 서비스연맹 소속 조합원 약 1만7천여명이 서대문 사거리를 불법점거한 가운데, 윤택근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대회사에서 ‘정부는 파업을 자제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대화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

[참고] 민주노총 10. 20 총파업 주요 요구사항

분야	주요 내용
비정규직 철폐	▲ 기간제법, 파견법 폐지 ▲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철폐
노동법 전면개정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근로자성 인정 ▲ 초단시간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부여 ▲ 교원, 공무원 노동3권 보장 ▲ 교섭창구단일화 폐지

Ⅲ. 노사 및 법제동향

분야	주요 내용
산업전환에 따른 일자리 국가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에너지 등 산업전환시 해고금지 ▲ 재난시기 해고금지 ▲ 국가기간산업 국유화
주택·의료·교육·돌봄· 교통 공공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의료·교육·돌봄의 국가책임 및 무상화 ▲ 공공주택 확대, 공공의료확대, 대학무상교육 등

- 한편, 경총은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해 10. 18 성명을 발표하고 총파업 철회를 촉구
 - 경총은 민주노총이 ① 총파업 계획을 철회하고 고통분담에 동참해 경제회복 노력에 함께 할 것, ② ‘위드코로나’를 준비하는 현 시점에 맞게 감염병 예방에 동참할 것, ③ 정부는 총파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에 대해 책임을 엄중히 묻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확립할 것을 촉구

2. 법제 동향

■ 전재수 의원(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10.15)

- (발의 이유) 하도급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해야 하고, 분쟁 조정 제도의 실효성도 강화할 필요
- (주요 내용) 발주자에 대한 자료제출 및 출석 요구의 근거를 마련하고, 분쟁조정 과정에서 감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종료된 사건에 대해 조정 신청 허용

■ 최혜영 의원(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10.15)

- (발의 이유) 현행법은 취업이 곤란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고령자 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은 장애인 등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 고용과의 격차가 여전히 심한 상태
- (주요 내용) 장애인을 새로 고용하거나 장애인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

■ 김병욱 의원(민),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10.19)

- (발의 이유) 현행법은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를 서면 또는 각 주주의 동의하에 전자문서로 발송하도록 하고 있으나 많은 사람들이 업무와 연락을 우편이 아닌 휴대전화로 하고 있는 점, 거소의 변경이 제때 주주명부에 반영되지 않아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 등을 고려할 필요
- (주요 내용)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방법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